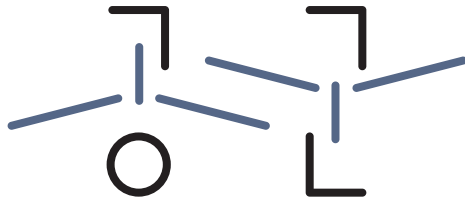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2
01
5 2 3

<http://afzine.co.kr>



Contents

04	기획특집	공군의 호랑이 F-5, 올해도 출격 준비 끝!
10	기획특집	공군, 우주를 향해 눈뜨다!
<hr/>		
16	특별기고	군용기가 귀여워 보인다면 이상한 걸까요? (코리아타임스 정다민 기자)
18	Aero Detail	항공선진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
24	무에서 유를	지금 왜 전통전술과 전통무예 공부가 필요한가?
28	내 옆의 공군인	이강빈 사진작가
34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F-5 Tiger가 그린 흑호(병장 황현동)

표 지(뒤) 2022 Happy New Year! (자토 작가)

발행일자 2022년 1월 1일(통권 제523호)

발행 대한민국 공군

편집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집감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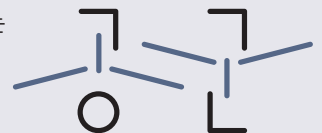
기획·편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최지형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1120516)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40	한 달, 한 권	영혼이 이끈 길
42	명상을 말하다	누가 진짜 자유인일까?
44	영화로운 나날	바로 지금을 잊지마세요
46	클래식 특특	클래식 입문
48	트렌드가 보인다	브랜드 굿즈 전성시대
<hr/>		
50	생각하는 그림	햇도그나 접어라
52	공군인의 편지	문득 돌아보면 같은 자리지만 (제18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 대위(진) 양승찬)
53	책읽는 공군	라틴어, 언어로 나와 세계를 배우다 (제8전투비행단 제237전투비행대대 일병 강대호)
54	수용의 미학	돌연변이
55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공군의 호랑이 F-5, 올해도 출격 준비 끝!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한다. 신년호 첫 원고이면서, 월간 『공군』 편집장으로 준비하는 마지막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다.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 공군에 있는 검은 호랑이를 소개하기로 했다.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에 흑호가 있다는 이야기가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있다! 무려 50년 가까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 바로 F-5E/F이다. F-5E/F의 별칭은 Tiger-2로, 동체 앞부분에 검은 호랑이 2마리가 포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검은 호랑이 해를 기념하며, F-5E/F 이야기를 준비했다. 도입 당시의 역사부터, 전투기의 특징, 조종사와 정비사 인터뷰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라.

F-5E/F Tiger-2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F-5 도입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공군력은 대한민국의 공군력을 앞섰다. 북한은 당시 소련으로부터 MIG-21이라는 최신 기종을 원조받아 실전배치했다. 우리나라에도 F-86 전투기가 있었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MIG-19, MIG-21과 비교했을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동맹국 미국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공군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1965년 MAP(Military Aid Program, 군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F-5A/B 1개 대대를 대한민국 공군에 제공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공군은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F-5를 기반으로 항공전력과 전략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 F-5A/B는 대한민국 공군에 최고의 선택지는 아니었는지 몰라도, 최선의 선택이었다. 우선, 추가 도입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전투기에 비해 비싸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임무에 투입이 가능했고, 한반도라는 작전 영역을 소화하기에도 제격이었다. 그래서인지, 1965년 F-5A/B 최초 도입 이후로 390여 대의 F-5 시리즈 항공기를 도입했다.

물론, F-5A/B에도 한계점이 명확히 존재했다. F-5A/B는 베트남전에서 경량 전투기로서 기대했던 이상의 활약을 보였지만, 항속성과 무장량의 한계가 있었고, 레이더가 없어 전전후 작전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기 동체 길이를 조금 더 늘리고, 날개-동체 연장부에 LEX(Leading Edge Extension)를 설치했다. 또한 레이더(AN/APQ-153)가 장비되었다. 그렇게 F-5 시리즈의 결정체 F-5E/F가 탄생했고, 1974년 우리나라에도 입됐다. F-5는 1967년부터 1985년 사이 10여 회의 대간첩 작전에 투입되었고, 북한과 중공 조종사 귀순 항공기 방공작전 임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한편, F-5E/F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기 면허생산 모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자주국방의 의지로 전투기 국내 생산을 추진했다. 정부는 1979년 7월 1일 그 대상 기종으로 F-5E/F로 결정했고, 이어 1980년 10월에 미국과 'F-5E/F항공기 공동생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산 전투기 제작 사업은 면허생산¹⁾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주관 사업자로 대한항공을 선정했다.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지 불과 10개월 만인 1982년 9월, 한국형 F-5E/F(KF-5E/F) 1호기 출하 행사가 대한항공 김해 공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에 이어 3번째 전투기 생산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1) 기술 도입 생산의 한 형태로 외국과 기술협력에 의해 생산 권한을 양도 또는 대여받아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F-5E/F에 대한 간단한 역사 이야기에 이어 F-5E/F를 훑어보는 지면을 준비했다. 이번 장에서는 F-5E/F의 특징을 사진으로 설명하고, KF-5E/F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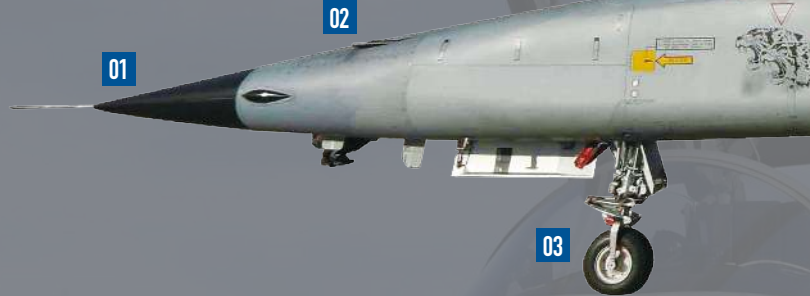


F-5E/F와 KF-5E/F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앞코 색 깔이 다르다. 검정코가 F-5E/F, 회색코가 KF-5E/F다. 또, KF-5E/F에는 ‘제공’이라는 별칭이 쓰여있다. 외형만 다른 것이 아니다. 안에 내장되어 있는 레이더도 조금 다르다. KF-5E/F에 탑재된 레이더 AN/APQ157는 F-5E/F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약 2배 더 길다.

02



F-5동체 앞부분에는 20mm 기관포가 있다. 분당 발사수는 최대 1,700발이고, 단좌항공기에 약 500여 발 탑재 가능하다



03



F-5만의 특별한 장치 Nose Hike가 있는 Nose Gear이다. Nose Hike는 유압장치로, 항공기의 기수를 일정 높이 들어 올리면서 항공기의 받음각(약 3도)을 증가시켜 이륙거리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 최종기회점검에 도착한 F-5는 Nose Hike 기능을 켜 활주로에 진입한 뒤 이륙한다. Nose Hike 기능 없이 이륙을 할 경우 이륙활주 거리가 40% 정도 증가한다.



04



F-5에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무장 AIM-9, Sidewinder이다. 항공기 엔진과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을 추적/요격하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무기이다.



사진에는 없지만, F-5가 장착할 수 있는 무장 KGGB다. MK-82 폭탄에 GPS/INS 유도키트를 장착해 사거리와 정확도를 향상시킨 정밀 유도무기이다.



SUU-25 항공 조명탄으로, F-5는 2통까지 장착 가능하다. 수색 및 구조 작전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조명탄 발사대이다.

05



항공기 앞부분을 보지 못했을 때 F-5E/F와 KF-5E/F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수직꼬리날개 끝 부분에 평평한 판이 있는 아래 사진의 항공기가 KF-5E/F이다.



비행대에 놓여있는 보라매공중사격대회 트로피



김동원 소령

F-5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의 생각은 어떨까? 마침 기회가 되어 고참 조종사와 정비사 인터뷰를 했다. 아래는 질의응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AF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원 소령 : 안녕하세요. 제18전투비행단 제112전투비행대대 1편대장 김동원 소령입니다. F-5 비행시간은 1,100시간이고, 올해 F-5 우수조종사로 선발됐습니다.

AF 조종사가 보는 F-5E/F는 어떤 전투기죠?

김 : 아주 단순한 2세대 전투기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죠. 4세대, 5세대 전투기가 나온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다소 제한되지만, 전투기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죠. 기본에 충실한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F F-5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김 : 시동만 걸면, 바로 출격할 수 있죠.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2배 가까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F-5는 전방기지에 배치돼 초도전력으로 활용됐죠. 비행안정성 또한 우수합니다. 2세대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고속이든 저속이든 뛰어난 안정성을 보이죠. 아무래도 쌍발엔진 전투기다보니 그렇습니다. 또, 전투기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축에 끼다보니, 근접교전을 할 때 적기가 육안으로 F-5E/F를 포착해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대대에서는 저시인성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동을 훈련하곤 합니다.

AF F-5의 아쉬운 점은?

김 : F-5E/F 전투기 자체에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선, 50년 가까이 된 전투기에 바랄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운용할 줄 알았다면, 전투기 성능개량에 조금 더 투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F F-5 전투기 조종사로 느끼는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김 : F-5 조종사들은 공중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판단과 결정, 조종을 조종사 스스로 해야 합니다. 최신 기종은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있지만, F-5는 오로지 조종사의 몫이죠. 그만큼 조종사의 기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F-5를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반성진 상사

AF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성진 상사 : 안녕하세요. 제18전투비행단 항공기 정비대대 정비기장 반성진 상사입니다. 1998년도에 임관해 제18전투비행단으로 배속받아 23년째 줄곧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AF 정비사가 보는 F-5E/F는 어떤 전투기죠?

반 : 아날로그 전투기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항공기를 정비하는 데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최신 항공기 정비와는 달리 주로 하드웨어 정비가 들어가거든요. 또, 작은 동체를 가졌지만, 무장은 알차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기총과 AIM-9 미사일 외에 KGGB도 2발 달 수 있습니다.

AF F-5를 정비할 때 특별히 신경쓰는 점이 있을까요?

반 : 저희 기지가 해안가에 있다 보니, 항공기 부식을 가장 신경씁니다. 기체나 기골과 같은 표면 부분은 계속해서 판금 작업을 하며 덧대며 정비하고 있죠. 부식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신경쓰일 일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오래된 전투기라 손이 더 많이 가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 세기 넘게 쌓여온 정비 노하우로 완벽한 정비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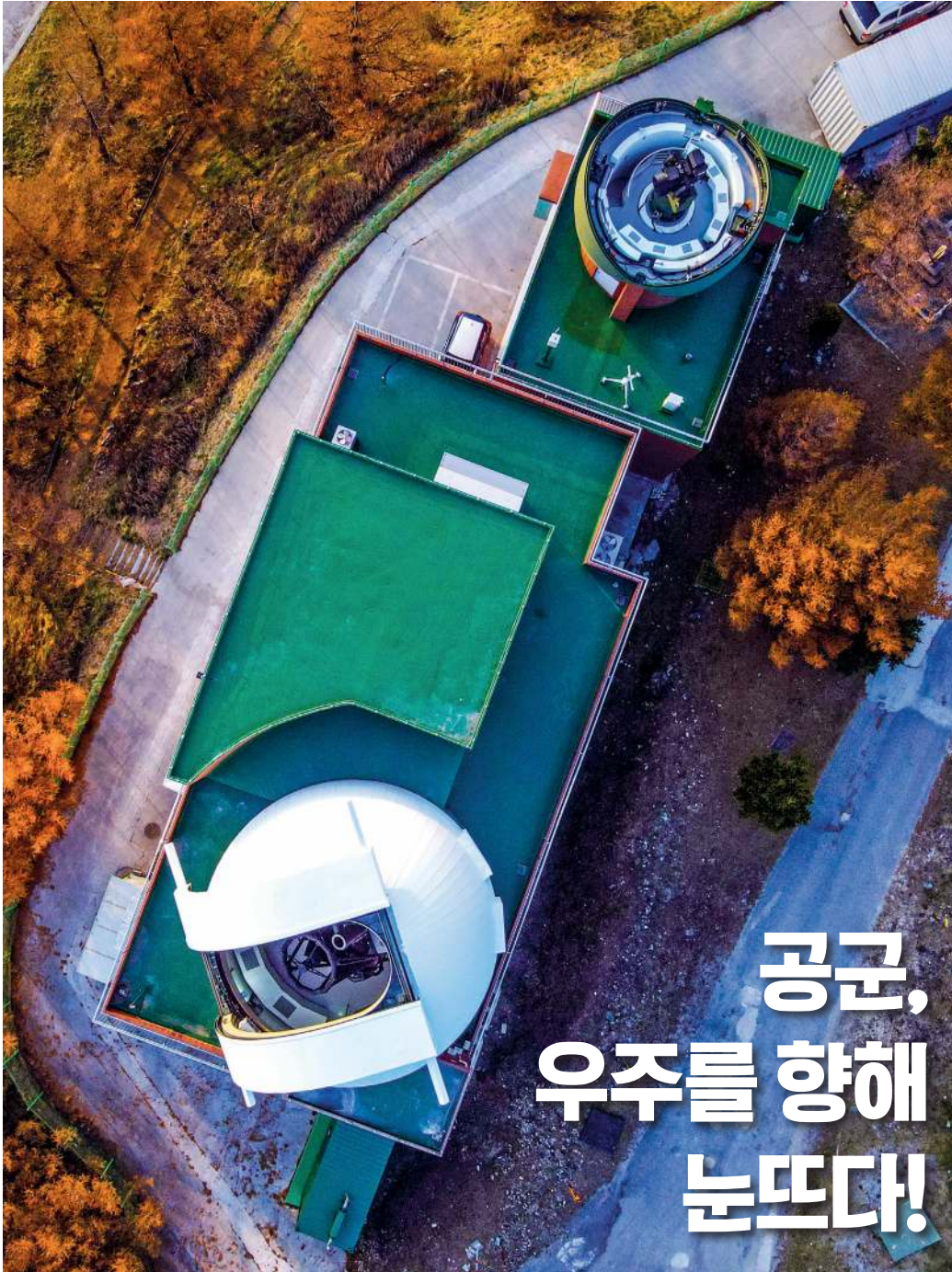
AF F-5 전투기 정비사로 느끼는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반 : 한 기종을 오랫동안 운용했다는 것은 항공기에 대한 신뢰도와 임무를 수행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대한민국 공군 F-5 역사 끝부분에 제 발자국도 하나 남겼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롭습니다. 몇 년 전에 F-5 제작사와 미 공군에 F-5 정비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한국 공군의 F-5 정비 실력이 저희들보다 뛰어난데, 왜 저희에게 물어보십니까?”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제작국과 제작사에서 인정할 정도이니, 대한민국 공군의 F-5 정비실력이 최고라고 자부해도 되겠죠? **AF**

F-5는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 존재감에 비해 최근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군의 주요 전력이다.

F-5와 조종사, 정비사는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올 한 해도 호랑이 모양을 꼭 닮은 한반도를 평화롭게 수호할 것이다.





공군, 우주를 향해 눈뜨다!

공군이 하늘 너머 우주를 향해 크게 한 걸음 또 내딛습니다. 전군에서 최초로 우주 전력을 갖춘 것인데요. 바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입니다. 체계가 전력화되면 비로소 한반도 우주영역에 대해 명확히 바라볼 수 있죠. 올해 초 전력화를 위해 열심히 작전 준비 중인 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공군의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와 우주작전에 대해 일문일답을 지면에 담아보았습니다.



AF. 먼저, 공군이 구상하고 있는 우주작전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주작전대 다수의 국가에서 우주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공군을 모체로 항공작전과 우주작전을 통합하여 항공우주군 또는 공군 내 우주작전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공군력과 우주력의 운영개념 및 환경이 유사하여 국방 우주력 건설이 용이하고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도 1998년 우주 전담 정책부서를 신설한 이후 우주작전·우주전투 요소를 지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2002년 제정한 『공군 우주작전 교리』와 『공군우주력발전 기본계획서』를 토대로 계속해서 우주작전 개념을 발전시켜왔죠. 2025년까지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 정찰위성 및 초소형 위성체계를 갖춰 제한적 우주영역 인식과 우주정보 지원 능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오는 2030년에는 전천후 우주영역 인식과 전방위 우주위협에 대한 제한적 대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2050년까지 조기경보위성체계, 위성 재밍 체계 등을 전력화하여 전천후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F. 이번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도입이 2050년까지 장대한 계획 중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체계 도입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주작전대 공군은 20년 전부터 우주안보와 우주작전 수행의 중요성을 예견하여, 정책·전력·조직·인력·협력 등 전투발전요소 전 분야에 걸쳐 우주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주공간에 대한 군사적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죠. 그에 맞춰 주변국들은 우주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요. 이미 상당수의 군사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고 있을 정도죠.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적성 위성의 첩보 활동을 감시하고, 우리 군의 정보획득 수단을 갖추기 위해 위성감시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첫 우주전력이 감시자산인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물론, 모든 우주전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정된 국방재원 안에서 차근차근 해결해야 합니다. 우주 안보를 위한 우주전력체계는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요구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단계적으로 우주전력을 갖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군에서 판단하기로는 우주작전 수행의 근간은 ‘우주 영역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전력화를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 중진국에 속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모두 공군력을 기반으로 우주작전을 수행하고자 가장 중심이 되는 우주감시 역량을 가장 먼저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우주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급속도로 발전을 꾀하고 있죠.

AF. 그럼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가 맡게 될 임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우주작전대 혹시 지구 궤도상에 몇 개의 인공위성이 활동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소 4,000여 개 이상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하는데요.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소유입니다. 게다가 상당수가 군사, 첩보 위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많은 수의 인공위성이 활동하고 있으니 그만큼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인공위성도 다수 있겠죠?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는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인공위성과 우주물체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보다 원활한 관측을 위해 전국 각지에 체계를 배치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했죠. 각 체계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위성궤도와 위성 영상, 분광정보 등을 획득하는데,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저궤도 인공위성과 우주물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주요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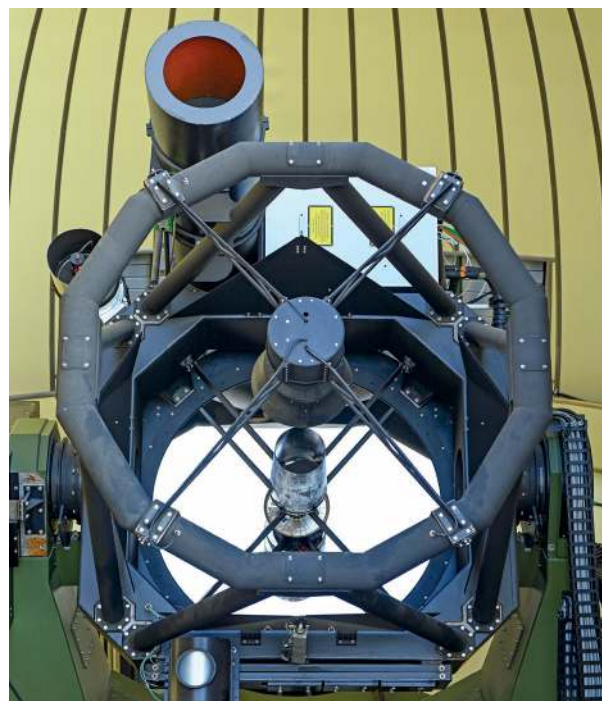
탐색 망원경

AF.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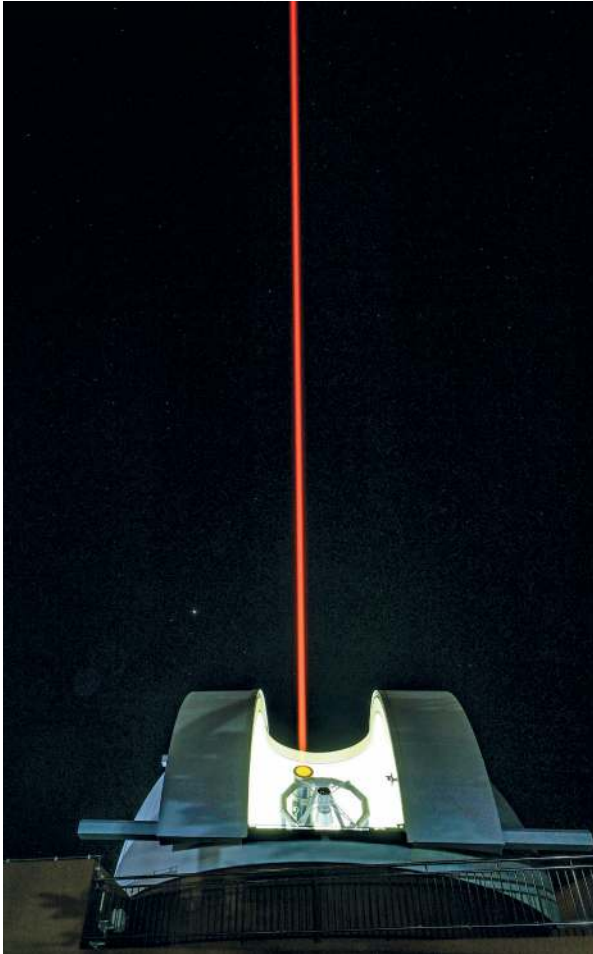
우주작전대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색, 식별, 통제시스템인데요. 우선, 통제시스템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인공위성과 우주물체에 대해 임무계획을 수립합니다. 탐색/식별 망원경에서 관측된 인공위성과 우주물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목록화하기도 하죠. 필요할 경우엔 위성 정보를 한국천문연구원과 공유해 추가관측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업을 하기도 하고, 관측정보를 제공받아 궤도 분석과 목록화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탐색시스템은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되어 국지적 기상 영향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용됩니다. 탐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한반도 상공의 인공위성 및 우주물체를 감시·관측하고 궤도를 산출합니다. 두 가지 모드로 운용되는데, 계획 모드에서는 기본 궤도정보가 확보된 인공위성 및 우주물체에 대한 관측을 통해 궤도를 갱신하고, 비계획모드에서는 미확인 우주물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궤도정보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합한 정보를 통제시스템과 식별시스템으로 전달하죠. 식별시스템은 탐색시스템에서 추적하는 인공위성과 우주물체에 대한 형상파악과 특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우주물체에 대한 식별 영상과 분광 정보를 확보하는데요. 적응광학장치를 활용하여 보다 선명한 식별 영상과 가시광선 대역의 분광 정보를 획득합니다. 분광 정보가 조금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빛의 스펙트럼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통제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이고, 탐색/식별시스템은 하드웨어입니다. 탐색시스템은 물체가 지나가는 궤도를 파악하는 것이 주 임무라면, 식별시스템은 그 물체가 어떤 형상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형상화하는 것이 주 임무이죠.



식별 망원경



식별 망원경의 야간 식별 과정

AF. 그럼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는 누가 운용하나요?

우주작전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운영부서는 우주감시반과 정비지원반으로 나뉩니다. 우선, 각 관측소의 탐색/식별 시스템은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우주감시반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탐색/식별시스템에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임무 브리핑, 관측소와 우주기상 파악, 우주물체 충돌 정보 획득, 최신 위성 궤도정보 등을 확인하죠. 또한, 관측 대상을 선정해 임무를 계획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목록화하기도 합니다. 정비지원반은 이런 작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점검 및 이동정비 등을 수행합니다. 우주감시반과 정비지원반이 한 조가 되어 24시간 원격 통제와 상황 근무를 합니다.

AF. 그렇다면 어떻게 운용하죠? 작전개념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주작전대 물론, 작전개념이 수립되어 있죠. 임무계획부터 목록화까지 총 6단계로 구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성을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임무계획을 수립합니다. 통제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는데요. 탐색/식별시스템의 관측시간과 위치를 계획하는 것이죠.

다음 단계는 탐색입니다. 임무계획에 따라 탐색 망원경을 구동해 시야에 물체가 나타나도록 찾는 것이죠. 이어지는 단계는 탐지인데요. 탐색과 비슷한 말인데, 그 뜻은 조금 다릅니다. 탐지는 시야 내 물체가 나타날 경우, 이동물체 유무를 파악하고 탐색/식별 망원경을 구동해 망원경의 시야 내 물체가 나타나도록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추적하죠. 탐색/식별 망원경이 탐지한 물체를 명확히 관측하기 위해 물체의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망원경의 시야 내에 계속해서 두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식별 단계로, 추적한 물체의 영상과 분광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죠. 식별 망원경에서 파악한 정보를 통제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마지막 목록화는 추적된 물체를 분류하고 물체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정비지원반의 식별 망원경 정비

AF. 이번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도입이 갖는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주작전대 우리 군은 위성 정보 대부분을 미 연합우주 작전본부의 궤도정보(TLE)에서 획득해왔습니다. 우주영역 인식에 대한 미군 의존도가 높았죠. 이제는 직접 보고, 식별하고 목록화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군 최초의 우주 자산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전력화를 통해 우주 작전의 초석을 마련한 셈이죠. 더불어, 자주국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F. 그렇다면,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가 들어온 지금, 우리 공군의 우주작전 능력은 어느정도일까요?

우주작전대 우리 군을 통틀어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이지만, 최근 관련 법 개정과 한·미 협력 등을 통해 우주개발 및 군사우주역량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군은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비롯하여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 정찰위성 및 초소형위성 체계 등을 갖추며 제한적 우주영역 인식과 우주정보 지원 작전능력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전력화할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가 우주감시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은 제한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고출력레이저 정밀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등을 구축해 완벽한 우주영역 인식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AF**



공군을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공군 SNS 주요콘텐츠 안내

에어본

AIRBORNE



오직 공군에서만 볼 수 있는 항공촬영 콘텐츠

공대리



공군 대위 LEE가 쉽게 풀어주는 공군 이야기

공피셜



공군이 알려주는 공군 이야기

100인의 공군



공군의 다양한 보직을 소개하는 미니다큐멘터리

하사하자

하사하자



공군 병사의 전격 임기제부사관 도전기



유튜브
대한민국공군
youtube.com/rokafplay



페이스북
대한민국공군
facebook.com/rokairforce



인스타그램
대한민국공군
instagram.com/rokaf_official



티스토리 블로그
공군 공감
afplay.kr

군용기가 귀여워 보인다면 이상한 걸까요?

영자신문사 코리아타임스 정치사회부 기자입니다.
2018년 1월 입사 이후 디지털 부서에서 북한 분야 기사를 쓰다가 2019년 3월부터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코리아타임스 정다민 기자



“귀엽다!” 국방부에 처음 출입하게 되었던 2019년 3월, 출입처에서 만나 막 친해지기 시작하던 선배들과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을 산책하던 때다. 전쟁기념관 옥외전 시장에는 구 소련 MIG-19 전투, 미 공군 B-52D 폭격기, 우리나라 최초의 국내 제작 항공기 부활호가 전시되어 있는데, 당시 자세한 이름들이나 어디에 쓰였는지는 몰랐지만 외양이 멋있는 항공기들에 눈이 갔고 멋있는 것, 좋아 하는 것들에 대해 ‘귀엽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지라 항공기들이 픽 ‘귀여워’ 보였다. 옆에 있던 선배는 “역시 무서운 후배..”라며 고개를 저었더라.

국방부 출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처음 ‘귀엽다’에서 시작한 군용 항공기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복잡해졌다. 같은 해 9월, 코리아타임스, 그리고 자매회사인 한국일보 동기들과 함께 베트남 호찌민으로 언론 연수를 떠났다. 첫 일정으로 호찌민 전쟁 박물관(War Remnants Museum)을 구경했는데, 베트남전(1955~1975)의 경험이 있는 나라인 만큼 전쟁의 피해와 그에 대해 피해자의 내러티브(narrative)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

히 우리에게만 동맹이지만 그들에게는 적국이었던 미국의 폭격기 B-52 폭격기가 베트남에 입힌 피해들을 사진으로 접한 것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서 멋진 외양을 가진 전투기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 B-52나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어 대북억제력을 과시했다는 등의 국방 기사들을 대하는 시각도 달라졌다. 이전까지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겨 왔지만 실제 폭격기들이 폭탄을 투하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갖게 되자 국방 기사의 무게들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은 탓이다. 폭탄은 폭격기로 투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크기가 큰 폭탄의 경우 수송기로 투하되기도 한다. 국방 기사에 종종 등장하는 GBU-43B/ MOAB(Massive Ordnance Air Blast), 우리 말로 공중폭발대형폭탄은 그 별명도 어쩐지 무시무시한 ‘모든 폭탄의 어머니(Mother of All Bombs)’인데




2017년 미국의 아프간 공습 당시 MC-130 특수전용 수송기에서 투하됐다.

살상무기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하기로 하고, 이쯤 되니 국군의 날 행사 미디어데이에서 F-35A 스텔스기를 보고 멋있다고 감탄하거나 하는 순간들에 어쩐지 이 멋진 전투기 역시 전쟁에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편한 느낌도 함께 갖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강한 국방, 튼튼한 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점차 공감하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멋진 군용기를 만들어내는 기술력에 대해 감탄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되었다. 특히 출입 기간 수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기술로 만들어내는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업의 한계나 비판점들도 불구하고 나날이 발전해 온 우리 국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군용기들의 전투적 쓰임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군용기들의 활약상은 국가 간 인력이나 물자의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나 대민지원활동에서도 두드러진다. 지난 8월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수송기의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이송을 위한 ‘미라클’ 작전이 대표적인 경우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과거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협에 놓

였던 73가구 378명의 현지 조력자들은 정부의 시그너스 투입과 신속한 작전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될 수 있었다. 시그너스는 또 지난 7월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에도 장병들을 국내로 후송하는 ‘오아시스 작전’을 펼쳤고 앞서 6월에는 미국 정부가 지원한 안센 백신을 국내로 수송하기도 했다.

시그너스는 기본적으로 공중급유기이기 때문에 어쩐지 ‘어미새’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공중급유기가 전투기에 급유하는 모습을 백조가 무리지어 날아가는 모습에 비유해 백조자리인 시그너스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 여하간 볼 때마다 어쩐지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엄마란 위기의 순간에 슈퍼우먼처럼 나타나 긴급 지원을 해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더 그랬다. 시그너스가 수송해 온 아프간 기여자들에게도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회를 주는 새로운 땅, 제2의 모국(motherland)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결론적으로 군용기는 여전히 ‘귀엽다’고 생각한다. 강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평화를 보장해주는 것도, 위기의 상황에 ‘짤’하고 등장해 긴급 지원을 해주는 것도 든든하고 멋지다. 군용기들이 앞으로 전쟁과 파괴보다 평화 수호와 생명을 살리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를! 



항공선진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

세계의 주요 공군은 미래 핵심 무기체계인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제 막 5세대 전투기 F-35를 전력화하고 있는 우리 공군에게 6세대 전투기는 먼 미래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주요 항공 선진국을 중심으로 6세대 전투기는 실물크기 모형이 공개될 정도로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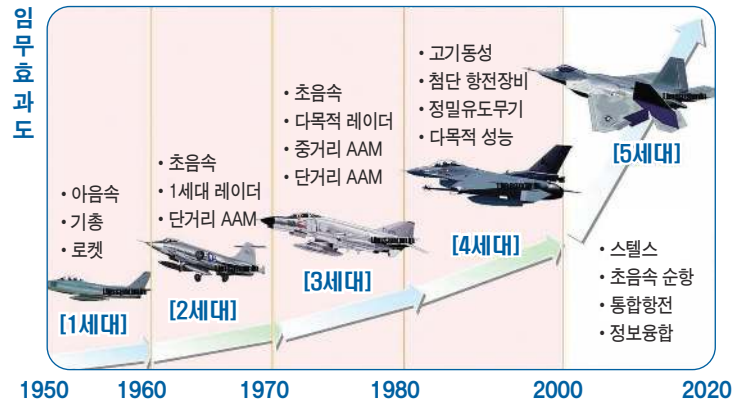
〈Aero Detail〉 코너 첫 주제로 6세대 전투기에 대해 준비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전투기 세대 개념을 살펴본 후 국가별 6세대 전투기 사업의 개발 주제, 목적, 경과, 임무/기술적 특징, 전망 등을 소개한다.

전투기 세대

전투기의 세대와 기술적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 업체가 처한 환경, 이해관계에 따라 세대 구분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학술적으로 연구하고자 전투기 세대별 기술적 특징과 전투기 세대에 따른 전투효과도 증가 경향성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연구한 바 있다.¹⁾

필자의 연구에서 살펴본 전투기 세대별 기술적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1세대 전투기는 기총/로켓으로 무장하고, 최대속도가 아음속이다. 2세대는 최대속도가 초음속이고, 1세대 레이더,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무장한다. 3세대는 다목적 레이더를 탑재하고, 중거리/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무장한다. 4세대는 고기동성과 첨단항전장비, 다목적 성능을 특징으로 하고, 정밀유도무기를 운용한다. 5세대는 스텔스 성능과 초음속순항, 통합항전, 정보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인 전투기 세대별 특징과 전투기 세대 증가에 따른 임무효과도 경향성을 표현하면 우측과 같다.

전투기 세대별 특징과 임무효과도 증가



1) 임상민, '정태적 전투효과도 분석기법을 사용한 전투기 세대 정량화 연구', Journal of the KIMST, Vol. 15, No. 5, pp. 643-650, 2012.



미 공군연구소가 공개한 6세대 전투기 개념도

미 공군 PCA, F-X, NGAD(USAF)

세계에서 가장 먼저 5세대 전투기 F-22를 전력화시켰던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이다. 미 공군이 미래 공중우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NGAD(Next Generation Air Dominance)라 불리우고 있다. NGAD에서 6세대 전투기인 PCA(Penetrating Counter Air)는 핵심에 해당하며, F-X 명칭으로도 혼용되고 있다. PCA는 기존 공중우세 전투기인 F-22와 F-15C/D 대체를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공개되었고, 개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반 기술 연구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2016년 5월, 미 공군은 공식적으로 PCA에 요구되는 임무와 능력을 공개했다. PCA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중국의 A2/AD(Anti-Access/Area Denial) 지역거부 전략 환경에서 중심 깊숙이 침투하여 표적을 탐지하고,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수단으로 교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 공군은 PCA의 항속거리, 탑재중량, 생존성, 공격성, 가용성, 지원성에 집중하고, 이를 최적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했다. PCA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미래 첨단 위협환경에서의 작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F-22보다 늘어난 항속거리, 탑재중량, 향상된 스텔스, 센서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중 미 공군은 광대역 스텔스²⁾를 6세대 전투기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미 공군은 2018년에 PCA 적용을 목적으로 고에너지레이저 등의 지향성에너지무기³⁾, 무인기 군집운용, 무인전투기 복합운용 연구 개념을 추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이 공개한 미 공군 6세대 전투기 개념도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이 공개한 미 공군 6세대 전투기 개념도

미 공군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는 CSBA, CBO 등의 기관에서도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 CSBA(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는 PCA의 전투행동반경을 1,500nm 이상으로 분석했다. 미국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는 PCA가 향후 2030년대 초 또는 중반에 전력화하여 2050년까지 F-15C/D, F-22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PCA 초도전력화 시기는 2030년대 초가 예상되나 F-35 사례와 같이 기술적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2) 광대역이란 위성통신에 주로 쓰이는 C-X 밴드로 주파수 대역으로는 4~12 기가헤르츠(GHz)에 해당한다. 광대역 스텔스는 광대역을 사용하는 레이더의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저피탐 기술을 의미한다.

3) 질량이 있는 물체를 표적에 맞추는 방식이 아닌 고출력 에너지를 직접 표적에 조사하여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무기. 레이저 무기,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입자 빔 무기, X선 무기 등이 이에 속한다.

미 해군 F/A-XX, NGAD(USN)



노스롭 그루먼이 공개한 미 해군 6세대 전투기 개념도

미 해군 역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NGAD(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해군의 NGAD는 미 공군 NGAD와 사업명이 동일하지만 서로 별개의 프로그램이다.

미 해군 NGAD는 F/A-XX 명칭으로도 혼용된다. F/A-XX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미 해군은 미국의 주요 항공기 제작사에 2012년 4월 정보요청서를 발송했다. F/A-XX는 기존 F/A-18E/F 수퍼 호넷, EA-18G 그라울러 대체를 목적으로 한다. F/A-18E/F, EA-18G가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함재기이기 때문에 F/A-XX 역시 당연히 함재기가 될 것이다. 임무적인 측면에서도 F/A-XX는 F/A-18E/F, EA-18G가 기존에 수행하던 임무와 역할의 수행을 요구받게 된다. 즉, F/A-XX는 제공, 대지 공격임무뿐만 아니라 전자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모함이라는 운용환경 때문에 미 해군 F/A-XX는 미 공군 PCA와 달리 형상, 중량 등 설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F/A-XX 특성과 관련하여 미 해군은 2015년 2월, F/A-XX가 우수한 탐지 능력과 무장 덕분에 기존 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와 속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F/A-XX는 새로운 스펙트럼의 무장을 운용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무장에는 지향성에너지무기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 5월, 미 해군은 F/A-XX의 무인화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F/A-XX의 전력화 시기 또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F/A-18E/F, EA-18G 계열의 수명주기가 2030년대에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미 해군은 이들 기종의 도태 시기에 맞추어 2030년대에 F/A-XX 전력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보잉이 공개한 미 해군 6세대 전투기 개념도

영국 템페스트, FCAS TI

영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템페스트(Tempest)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템페스트는 영국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운용했던 프로펠러 전투기 이름이다. 영국이 현재 주력기로 사용하는 타이푼의 개량형인 템페스트 이름을 미래에 다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템페스트/FCAS TI(Future Combat Air System Technology Initiative) 프로그램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대체를 목적으로 한다. 2018년 7월 16일, 판보로 에어쇼에서 영국 국방부는 템페스트 실물크기 모형과 함께 개발계획을 공개했다. 템페스트 개발에는 BAE 시스템즈가 체계종합을 주도하고, 추진 분야는 롤스로이스, 항공전자는 레오나르도, 무장은 MBDA가 참여한다.



영국 BAE 시스템즈가 공개한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실물크기 모형

2018년에는 템페스트의 주요한 기술적 특징을 공개했다. 기체/추진 분야에서는 차세대 비행제어체계, 적응형 사이클 엔진 개념을 포함한 첨단 동력 및 추진 시스템 기술을 제시했다.

센서 분야는 다중분광 통합센서체계, 첨단 능동/수동 전자광학센서, 첨단 전파센서, 분산형 광대역 센서 기술을 제시했다.

공격분야로는 지향성 에너지 무장, 전자전, 차세대 기만체, 무장 지원, 다중 네트워크 무장, 극초음속, 협동교전,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통한 군집운용, 미래 순항/대함 무장을 이용한 중심타격 등을 제시했다.

성능개량 분야는 개방형 임무체계, 가변 탑재물 형상, 확장형 구조 설계 등을 제시했다. 방호분야는 고위협하에서의 팀 생존성을 제시했다. 연결 및 협동작전 분야로는 통신과 상호운용성을 제시했다. 그밖에 과학과 기술혁신을 통합하는 복합체계 개념, 유연성 분야는 첨단 임무 데이터, 가상 조종석 개념을 제시했고, 가변 자율성을 지닌 유무인 복합운용 옵션을 신개념으로 함께 제시한 바 있다.

프랑스/독일 FCAS, NGF, SCAF

프랑스와 독일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FCAS(Future Combat Air System)/NGF(New Generation Fighter)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2018년 4월, 베를린에어쇼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FCAS 프로그램 발표 이후 2018년 12월에는 스페인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FCAS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프랑스와 독일은 2019년 2월부터 2년간 개념연구에 착수했다. 프랑스는 FCAS로 NGF 뿐만 아니라 무인기, 군집운용, 유도무기, 기존 항공기를 포함한 복합체계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NGF의 구체적인 형상으로 프랑스는 2018년 유로네이벌 전시회에서 무미익 전투기 모형을 전시했다. 무미익 형상은 광대역 스텔스에 효과적인 설계방식이다. FCAS 개발을 주도하는 프랑스는 항공모함을 운용하기 때문에 라팔의 경우와 유사하게 육상기지에서 운용할 수 있는 FCAS 기본형을 먼저 개발하고, 함재기형을 후속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4월 25일, 에어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전투기의 요구능력으로 저피탐성, 항속거리 증대, 무인기 지휘통신, 생존성, 정보/감시/정찰+데이터융합 및 분배 등의 항목을 신개념으로 공개했다. 또한 NGF는 FCAS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무인 플랫폼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2018년에 공개했다. 그리고 관련 무인체계는 네트워크화되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NGF 체계와 유무인 복합운용, 군집운용

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2018년 11월 14일, 에어버스는 레이저-극초음속, 전자전-사이버, 인공지능, S/W 확장 등 NGF 적용에 필요한 신개념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에어버스는 NGF를 위한 일부 기술을 사전에 유로파이터와 라팔 전투기에 먼저 적용하고, 일부 기술은 시제기 및 시범기로 시험평가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NGF에 통합할 계획이다. 에어버스는 NGF 전력화 시기를 2035년에서 2040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가 공개한 NGF 6세대 전투기 실물 크기 모형

본문에 서술된 6세대 전투기의 다양한 운용개념과 기술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독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이제 4.5세대 KF-21을 개발하고, 5세대 F-35를 전력화시키고 있는 우리에게 6세대는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6세대 전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을 공개할 정도로 이미 앞서가고 있다. 전투기 관련 기술 연구와 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긴 시간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6세대 전투기 획득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공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전투기 전력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AF**

글쓴이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ETRI에서 IT연구, KAI에서 전투기 개발, 기품원(국기연)에서 항공무기 기술기획,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군 전력지수 산출에 참여하였고, 방사청의 F-35 성능/기술 분야, KF-21 ROC, KF-16 성능개량 등을 기술 지원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을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논문을 기고, 공군 항공우주무기편람/국방과학기술조사서의 전투기 분야 감수, 공군대학 CSC/SOC 과정에서 전력학을 강의지원하고 있다. 글쓴이는 앞으로 월간 『공군』 〈Aero Detail〉 코너를 통해 항공무기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한다.

공군 신고전화 7979입니다.

군 전화는 [국번없이] 7979, 일반전화는 042-552-7979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7979는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신고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공군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고와 의견을 바탕으로
바르고 강한 공군을 만들겠습니다.



무예에서 유물로

지금 왜 전통전술과 전통무예 공부가 필요한가?



글쓴이 소개_〈무예도보통지〉에 담긴 무예24기를 28년 동안 한결같이 수련하였으며, 무예를 통한 몸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 상임연출로 활동하고 있다. 〈정역 무예도보통지-정조, 무예와 통하다〉 〈조선 후기 무예사 연구〉 〈병서, 조선을 말하다〉 〈조선의 무인은 어떻게 싸웠을까?〉 등 10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 과거 몇십 년 전만 기억해 봐도 손에 들고 다니며 전화통화를 하고, 온 지구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의견을 주고받는 일은 〈스타워즈〉와 같은 SF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을 살고있는 우리에게 그런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전쟁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전투 현장은 단순한 창칼이 난무하며 호기롭게 돌격하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군사위성으로 적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단 한 발로 상대국가의 거의 모든 시설물과 생명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병기를 비롯한 엄청난 무기들이 버튼 하나로 조작되는 시대가 되었다.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은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고, 그 손가락 끝에서 마무리되는 상황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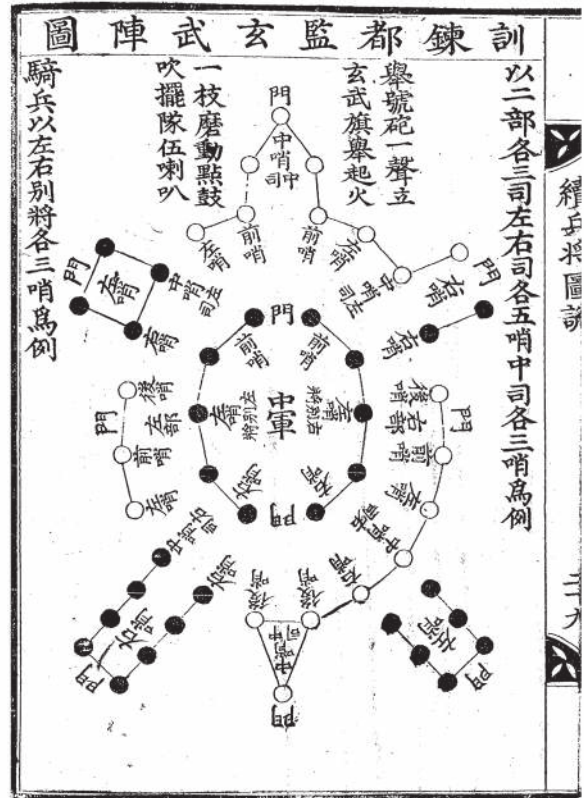
이런 현실에서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이는 전통시대 전술이나 전통무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닥다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질문을 한다. “지금 전통전술과 전통무예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라고. 그 답은 명쾌하다. 전통전술과 무예에는 최첨단의 기술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생존에 대한 본능’과 ‘몸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강력한 신무기가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 ‘몸’이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을 넘어서기 어렵다. 더 본질적으로는 빠른 변화의 바탕에는 과거의 전통적인 ‘생존철학’이 담겨 있기에 그런 변화가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통시대의 다양한 지식이나 철학을 통해 오늘의 삶을 채울 수 있고, 보다 먼 미래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군사부문에서 예를 들면 이렇다. 현재 공중전에서 활용되는 전투기들의 제조비용과 운용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대한민국의 공군 주력기인 KF-16의 경우도 3백억을 넘고 각종 추가 무기를 장착하고 여러 기체를 동시에 운용해야 하기에 그 비용은 엄청나다. 그리고 그 기체를 조종할 파일럿을 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비롯하여 제반 유지비용은 아무리 아끼고 아껴 절약해도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을 비롯한 군사강국들이 운용하는 스텔스형 차세대 전투기들은 대당 가격이 천 억원이 훌쩍 넘을 정도다.

그런데 미래 공중전의 핵심 주역으로 떠오르는 것이 드론이다. 기술적인 부분만 충족된다면, 전투기에 비해 불과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수준의 낮은 제조가격에 수백 아니, 수천 대의 기체를 동시에 하늘에 띄워 무시무시한 공중 공격력을 자랑한다. 심지어 일반인들이 취미 생활로 운용하는 초소형 드론의 경우는 몇 만원대의 가격이지만, 공중촬영이나 약간의 무게를 싣고 일정 시간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실제로 중동지역에서는 벌써 몇 해 전부터 드론에 폭탄을 싣거나, 미사일을 장착하여 특정 목표를 공중에서 타격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에 더욱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드론이 공중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에 대한 기본 공격 전술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드론의 군사상 최대 장점은 수십 혹은 수백 단위의 군집된 기체들이 동일한 비행방식으로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방식이다. 수백 대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모두 방어해 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때 드론이 공중에서 군집으로 작전을 펼칠 때 활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움직임이 스웜전술(Swarm tactics)이다. ‘Swarm’은 벌같은 작은 곤충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날아다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로, 전통시대 화약무기가 발달하기 이전에 전투현장에서 기병들이 사용했던 전술을 상징한다.



〈속병장도설〉 속 현무진, 현대전에서도 진법은 여전히 유효한 전술이다.

특히 아주 가볍고 단순한 무장을 한 경기병(輕騎兵)이 활 하나만을 가지고,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씩 군집을 이뤄 상대의 방패와 갑주로 중무장 보병 진형을 향해 빠르게 화살을 쏘고 달아나는 전술적 움직임을 말한다. 단순히 한 번만 활을 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지의 경우 상대의 진형을 크게 이리저리 돌며 연속적으로 화살 수백 개를 아주 근접공간에서 쏘기에 막아내는 보병들은 서서히 방어진이 무너지기 일쑤였다. 마치 벌떼에게 공격당해 속절없이 도망가는 맹수들도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환도를 뽑아 들고 먹잇감을 공격하는 송골매처럼 신속하게 적을 공격하고 있는 필자의 사진

실제로 필자의 경우는 마상무예와 기병전술 등 전통시대 무예와 전술을 30년 가까이 훈련하고 공부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다. 그 중 몽골에서 전통기병전술을 복원하기 위해 수십 마리의 말을 동원하여 다양한 전술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단 몇십 마리의 전투마에 둘러 쌓여 일방적인 공격을 받는 보병 진형을 연상하는 훈련을 전개했는데, 그때 공격받는 입장의 위압감은 상상초월이었다. 단 수십 마리의 말이 한 곳을 향해 달려오면, ‘지축을 흔든다’라는 공포감이 실제 피부로 와 닿게 된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상대 기병의 무기를 제자리에서 보병이 감당하는 것은 단순한 체력적 문제를 넘어 심리적 공포의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피부로 체감하였다. 만약 이것이 실제 전투상황이었다면, 아군 보병진형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괴멸수준으로 몰락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초원을 호령했던 유목민족의 기병부대에서 수천 년 동안 보편적으로 활용했던 전술로 빠른 전투마를 타고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사냥했던 전통 일상생활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대 기병의 다양한 전술을 이해하고 공부한다면, 현재 드론을 활용한 전술 개발에도 상당한 이점이 생길 것이다. 또한 상대의 드론군집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전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기병에 대항해서 보강된 중장갑기

병의 전술이나 중장보병의 진법운용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국방부 산하에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도심빌딩과 같은 고층건물이 밀집한 공간에서도 정밀하게 군집드론을 활용하여 적을 탐지하고 공습하는 기술인 ‘공격형 군집 비행전술(OFFSET: Offensive Swarm-Enabled Tactics)’ 프로그램을 보병 소대가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발 중이기도 하다. 또한 미 해군연구소에서는 공중뿐만 아니라 바닷속에서도 드론을 군집으로 전술에 활용할 목적으로 새로운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전술의 개발은 과거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투환경에 맞게 변화 발전시키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역시 지금 전통시대의 무예의 가치도 유사한 맥락이다. 무예는 그 탄생의 지점이 냉혹한 자연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류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몸짓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것이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으로 무장한 곰이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구사할 수 있는 무기를 활용하거나 집단을 이뤄 맞서는 ‘지성(智性)’의 결과물로 무예가 탄생한 것이다.



전통 활쏘기 만작을 하고 있는 필자

또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단위로 조직체를 형성하며 거대한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무예는 전투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 움직임을 담은 ‘야성(野性)’의 집결체로 더욱 정련되었다. 조금은 방어적 표현이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처럼 싸워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처럼 위기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움직임들이 무예 수련을 통해 더욱 강건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예 수련에는 ‘영성(靈性)’이 더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신에 대한 올곧은 믿음을 넘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안정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주먹과 발을 믿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활이나 창검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전투력은 더욱 증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성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존재에 보답하는 ‘충성(忠性)’의 매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전통무예는 현재에도 무예 수련을 통해서 거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은 인간만의 지성과 야성, 그리고 영성의 몸짓을 채울 수 있기에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미래로 갈수록 전자화, 기계화되어가며 인간의 몸에 대한 소외현상이 극대화될수록 무예수련을 통한 인간만의 ‘몸 기르기 방식’은 더욱 의미있는 몸짓이 될 것이다. 최종병기의 단추를 누르는 순간도 인간의 손가락 끝이며, 그 누르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인간적 고뇌의 결과물일 것이며, 그 결단은 내 가족,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강할수록 더욱 지혜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통시대의 전술과 무예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재발견되길 희망한다. AF

[각 회차 주제 소개]

1. 전통전술과 전통무예	9. 낭선(狼筈)	17. 격구(擊毬)
2. 기사(騎射)	10. 당파(鎗鈹)	18. 마상재(馬上才)
3. 편전(片箭)	11. 예도(銳刀)	19. 월도(月刀)
4. 철전(鐵箭)	12. 본국검(本國劍)	20. 험도(挾刀)
5. 모구(毛毬)	13. 왜검(倭劍)	21. 등패(藤牌)
6. 삼갑사(三甲射)와 삼갑창(三甲槍)	14. 쌍수도(雙手刀)	22. 쌍검(雙劍)
7. 기창(騎槍)	15. 권법(拳法)	23. 택건과 씨름
8. 장창(長槍)	16. 마상편곤(馬上鞭棍)	24. 검 교전(交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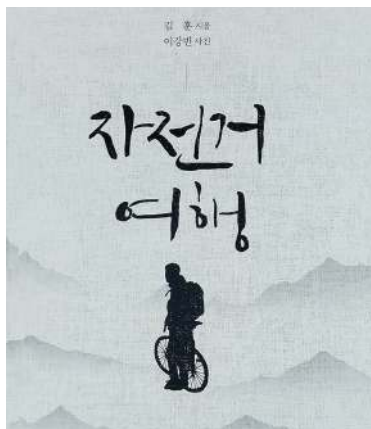
제33화 이강빈 사진작가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자전거 여행』 『자전거 여행』을 작업할 당시 이강빈 작가(오른쪽)

안녕하세요. 2007년에 대한민국공군 다큐멘터리 사진집 『조국의 날개』를 만든 사진작가 이강빈입니다. 2006년에 닿은 공군과의 인연이 돌고돌아 2022년 1월에 다시금 이어졌네요. 요즘 군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사진집일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저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국의 날개』 제작 당시의 이야기와 책에는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사진작가 이강빈

저는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12월에 <주부생활>이라는 잡지사에 취직해서 사진 기자 일을 시작했죠. 여러 코너를 맡았고, 주로 인물과 요리 사진을 찍었어요. 이후에는 시사 IN에서 나오는 TV저널에서도 잠깐 일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소속을 가지고 일하기 보다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어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전향했습니다.

잡지사와 한 작업도 많지만, 유독 문인들과 함께 한 작업물이 많습니다. 김용택 시인과 함께 작업한 『촌아 울지마』, 『섬진강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김훈 작가와 함께 1년 동안 매주 금요일에 연재했던 코너를 묶어 발간한 『자전거 여행』도 있죠. 이런저런 작품들을 하다보니, 인물, 요리, 풍경 사진들을 모두 섭렵한 사진작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인천 송도 컨벤션 센터 아트페어에서 월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필자입니다. 1978년 해병대에서 20개월을 복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때에는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 몇개월을 감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짧은 기간이 마음에 들어 입대했습니다. 공군과의 인연이 닿을 줄 알았다면, 공군에 갔을 것입니다.

공군의 새로운 시도

공군과의 인연은 친한 선배와의 전화 한 통으로 이어졌습니다. 2006년 평범한 어느 날, 공군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집을 만들겠다는 용역을 냈으니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추천 전화였습니다. 여러 차례 고민을 하다, 하늘을 주름잡는 공군의 이야기를 내 사진으로 풀어내 사진집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군에서 만드는 일반적인 화보집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추구했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갖는 특유의 보수성과 폐쇄성에 대해 우려했었죠. 하지만, 우려는 기우였습니다. 마침 공군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육군에서 『휴전선 155마일』이라는 DMZ 사진집을 발간했었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작가가 450일 간 DMZ를 3번이나 횡단하며 직접 사진으로 담은 책인데 공군에서도 『휴전선 155마일』 같은 멋진 사진집을 만들길 원했죠. 군대라는 조직에서도 저와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공군에서 강한 열의를 보이며 다가오니,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죠.

공군을
사진에 담다

제가 『조국의 날개』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연출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자, 풍경 사진과 인물 사진을 따로 찍자, 온전히 이 작업에만 몰두하자. 등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첨단전력을 운용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담아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면 꼭 인물 사진 촬영시간을 따로 두었습니다. 인물 하나하나의 내면을 심도 있게 들여다 본 뒤 사진에 담았습니다. 또, 사진을 찍기 전에 꼭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본 뒤에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람 뿐만이 아니라, 항공기를 찍을 때도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선, 기존 화보집에서 보여주었던 공군의 모습과는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정형화된 각도와 피사체를 비틀어보았죠. 공군에서 만드는 화보집이 아니라, 사진작가 이강빈이 만드는 화보집이기에 외부인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업은 1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촬영 기간 300여 일, 이동거리 5만여 km. 공군 최북단 부대에서 최남단 부대까지 사계절의 자연풍광들을 배경으로 전국도처에 있는 30여 개 공군부대를 돌며 공군인들의 진솔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2006년 3월에 시작한 촬영이 2007년이 돼서야 책으로 나왔죠. 15년이 넘는 지금에도 제가 찾았던 공군부대는 모두 생생히 기억납니다. 여러 항공기를 보여주겠다고 대부분의 비행단을 가보았습니다. 또, 공군인들의 요람 교육사령부도 가봤죠. 울릉도, 대성산, 황병산, 화악산 등 오지에 있는 공군부대도 빼놓지 않고 찾았습니다.

한 달에 3회 출사를 나갔고, 한번 촬영을 나갈 때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씩 일정을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어떤 사진을 찍을지 충분히 고민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출장 일정을 여유롭게 잡았죠. 이렇게 1년 동안 공군 사진집을 만드는 동안에는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멀티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한 작업에만 몰두하곤 하는데요. 오로지 머릿 속에 공군만을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출사를 나가지 않는 날에는, 평소 몰랐던 공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러 책을 찾아서 읽기도 했습니다. 꼼꼼이 앉아서 다음 부대에선 어떤 사진을 찍어볼지 고민하면서 살았죠.



『조국의 날개』

공군부대 출사 비화

출사 나갔을 때에는 매번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제17전투비행단에 출사를 갔을 때 일입니다. 멋드러진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 오르는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선가 봤던 사진들이 되는 것이 싫어 활주로에 누워서 항공기 배면을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슬쩍 말하고 전투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후다닥 다녀오려고 활주로 끝단 잔디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담당자 전화벨이 울리더니, 담당자가 관제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그날 담당자는 관제탑에 근무하고 있던 선배 장교에게 호되게 혼났다고 합니다. 멋진 사진을 찍고 싶다는 욕심이 그만 화를 불러왔죠.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17전투비행단에서 한 달에 한 번 울릉도에 있는 공군부대로 가는 정기공수편에 탔습니다. 시누크 헬기를 타고 여러 공군 부대를 순회했죠. 탑승하기 직전까지는 17전비에서 바로 울릉부대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3개 정도의 부대를 경유하더라고요. 1~2시간이면 갈 줄 알았던 여정이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생각외로 긴 여정이 상당히 고되더라고요. 프로펠러 소리에 대화는 되지 않는 데다가, 소변을 누고 싶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릴 때까지 참았다가,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췌겉음으로 뛰어서 화장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간에 경유지에 도착할 때마다 잠깐 화장실에 갈 여유가 있었더라고요. 한번 탑승하면 도착지점까지 내리는 것이 안되는 줄 알고 입 꼭 닫고 참고 있던 제 자신이 참 웃겼습니다.

그 밖에도 임무를 방해하면서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아 몇 시간이고 한 지점에 서서 기다려 건진 사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찍은 사진도 기억이 납니다. 또, 한겨울에 산중 오지에 있던 부대를 찾았을 때는 겪어보지 못한 추위와 싸우면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카메라가 방전될까봐 가슴에 품고 다녔고, 카메라를 조작하기 위해 맨손으로 사진을 찍다보니 셔터와 손가락이 얼어붙기도 했었죠.

이런 저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아쉬운 일도 하나 있습니다. ‘공군의 사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항공촬영이죠. 저도 전투기에 올라타 중력가속도를 견디면서 전투기와 조종사의 멋진 모습을 항공촬영하고 싶었습니다. 일반 사진작가가 경험하기 어려운 값진 기회라고 생각해 열심히 어필했죠.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공중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생리훈련까지 모두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 일들이 맞물리면서 항공촬영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표지에 보이는 사진이 하이택시를 하며 찍은 사진인데, 전투기에 올라타 찍은 전부이죠. 그래도 전투기에 올라타 보긴 했네요. 하하하.



『조국의 날개』를 펼쳐보며 출사 비화를 이야기하는 이강빈 작가



작업실에서 커피를 내리며 작품에 대해 고민하는 이강빈 작가

이강빈표 공군 사진집

사진을 찍은 후에 작업을 하여 공군에게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사진을 고르는 단계, 고른 사진들을 편집하는 단계, 지면에 놓고 프레임을 만드는 단계 모두 공군에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제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어주었죠. 그래서 2달 동안 편집하면서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저의 예술관이 온전히 녹아내렸죠. 사진집에는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공군에 대한 헌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설명글이 없습니다. 사진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게끔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또, 특별히 보정한 사진이 없습니다. 인위적인 모습을 전혀 느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책장을 쭉 넘기면서 다양한 공군의 모습을 보고, 하나의 공군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선한 기획, 철저한 준비, 공군의 열의, 작가의 감성이 더해진 걸작이라고 자평합니다.

사진집을 발간하고, ADEX 행사장에서 사진 전시회도 따로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서울 프레스센터 사진전시회가 무산되면서 진행된 전시회였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웠죠. 후에, 『조국의 날개』를 보고 공군 공보정훈부사관 분들이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조국의 날개』를 교과서처럼 본다는 소식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현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가장 궁금한 것은 병영문화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 『조국의 날개』 담당자가 2022년도에 『조국의 날개2』를 만들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우선 지난 『조국의 날개』 경험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최소 30번 이상의 출사를 나가야 할 것이고, 사진 선정과 편집 과정을 2달 정도로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1년이 걸릴 것 같네요. 한 가지 작업을 1년 동안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정은 아니에요. 그런 제안을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군과 작업하는 일은 굉장히 신나고, 보람차거든요. 또,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공군의 병영문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기대됩니다. 1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바뀌었겠죠?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인물 중심의 사진집을 해보고 싶네요.

좋은 사진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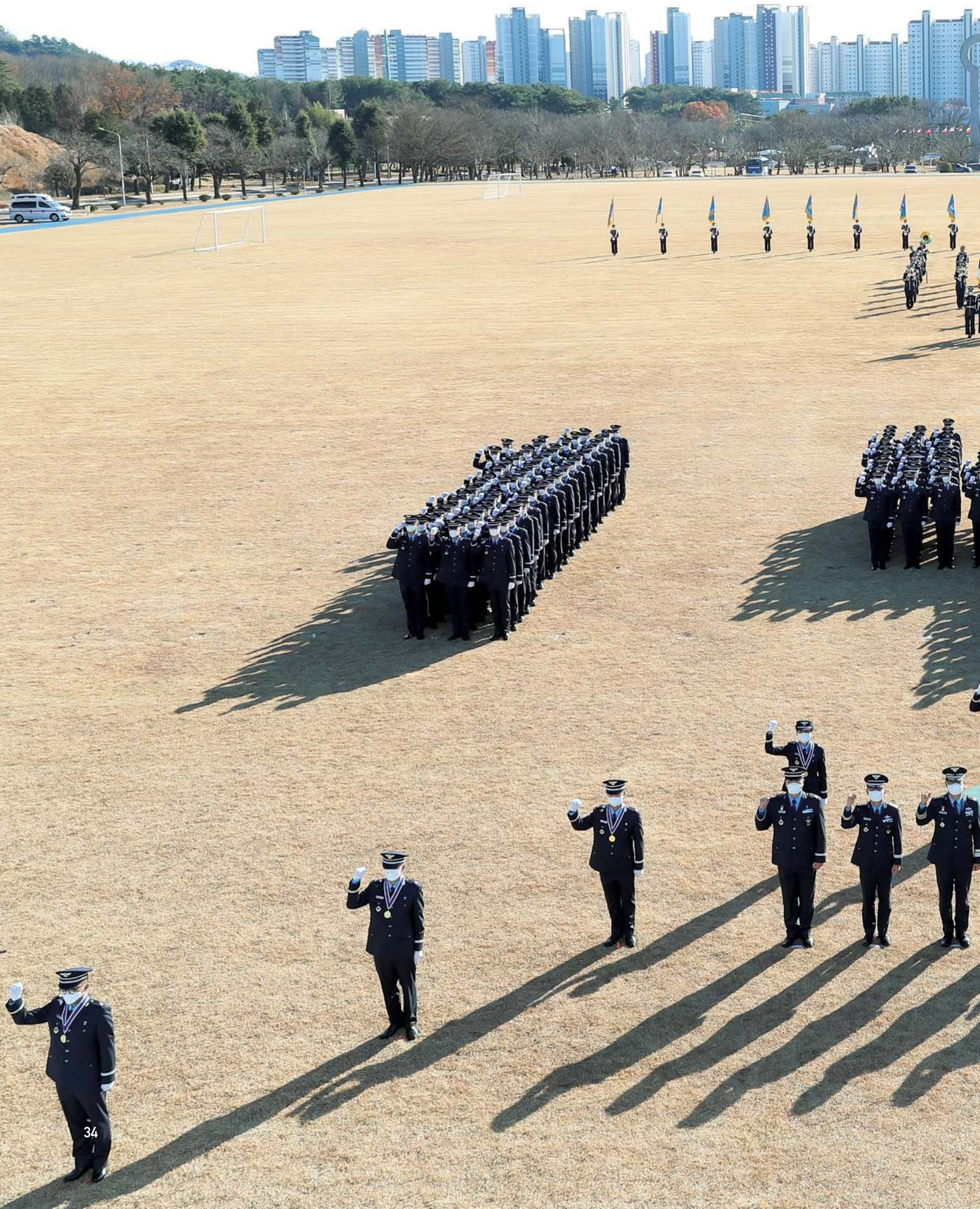
공군에서 찍었던 사진들도 모두 이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진은 오래 두고 봐도 질리지 않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사진을 찍고 난 뒤에 인화해서 침대 밑에 붙여놓고 계속 봅니다. 보고 또 보면서 한 장씩 떼어내죠. 그러다 보면 아주 드물게 남는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직업이 사진작가이지만, 제가 찍은 사진에 많은 애정을 쏟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진이 주는 가장 좋은 효과는 사진 그 자체가 아니라, 피사체에 대한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 수 있는 이유 또한, 무수히 많은 사진을 찍으며 그 피사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날개』에 담긴 사진 하나하나 모두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사진들이죠.



이강빈 작가가 뽑은 『조국의 날개』 최고의 사진

1년 동안 공군의 역사 한 편을 제가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공군소식을 꾸준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 담당자 두 분과 아직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나고 있죠. 『조국의 날개』를 위해 출사를 다니며 만났던 많은 공군인들에게 많은 빛을 쬐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겠다고 말하며, 있는 그대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웃으면서 모두들 도와주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과, 그 뒤를 이어 열심히 조국영공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공군인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공군인들의 모습은 모두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었습니다. 세련된 외모와 지적인 언행,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에서 저도 모르게 신뢰감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공군인들에게도 같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공군에 무한한 신뢰감을 보내며,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 **AF**







제147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공군은 12월 2일(목),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박한주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제147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2021년 공군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주관

박인호 참모총장은 12월 21일(화) 공군호텔에서 ‘2021년 공군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주관하여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전장환경의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부합하는 비행기량과 전술전기를 연마시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우주공군’으로도 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콜롬비아 방산전시회 참석



박인호 참모총장은 11월 29일(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콜롬비아 방산전시회 (EXPO DEFENSA2021)’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스페인, 페루, 이스라엘 등의 대표단을 만나 FA-50, M-SAM 등 우리나라 국산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국방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페루 피스코기지 방문



박인호 참모총장은 12월 2일(목) 페루 국방부, 합동군사령부, 공군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FA-50 항공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나라와 페루 간 방산협력과 양국 공군의 교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우리나라 국산항공기인 KT-1P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피스코기지를 방문해 항공기 가동률 보장과 군수지원 등을 비롯해 작전·교육·군수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임무조종사들을 격려했다.



제1전투비행단

206전투비행대대 해체식

제1전투비행단은 12월 14일(화) 단본부에서 제 206전투비행대대 해체식을 거행하였다. 제206전투비행대대는 1978년 제16전투비행단에서 22명의 조종사, 16대의 항공기와 함께 시작하였다. 1999년 1전비로 기지를 이전한 이후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을 중점으로 한 비행문화 정립에 앞장섰다.



제8전투비행단

장병 스트레스 해소 위한 푸드테라피

제8전투비행단은 12월 15일(수) 전 장병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크리스마스 쿠키&티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푸드 테라피로 오감 체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1전투비행단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 점검

제11전투비행단은 12월 13일(월),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시작된 병사식당을 점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급식 만족도 향상 및 급양병력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범위는 식단편성부터 조달, 조리, 배식, 식기세척 등 급식 전 과정이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체인장착 경연대회

제15특수임무비행단 수송대대는 12월 8일(수) 겨울철 눈길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체인장착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경연대회는 버스, 소방차 등 특수차량 체인장착 능력까지 점검하여 눈길 차량 사고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16전투비행단

부대 인근 마을 '사랑의 땀감' 전달

제16전투비행단은 12월 14일(화) 영주국유림관리소와 함께 기지 인근 3개 마을에 사랑의 땀감과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제20전투비행단

120전투비행대대 9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수립

제20전투비행단 제120전투비행대대는 12월 16일(목) 9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하였다. 이번 무사고 기록은 1997년 9월부터 총 24년 2개월에 걸쳐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다.

한 달, 한 권



영혼이 이끈 길

마음이 사는 곳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인 듯합니다. 영혼 또한 마음과 한통속이라 가슴속에 함께 사는 게 분명합니다. 나는 가끔 영혼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심장 근처에서 들리는 듯합니다. 비록 육신의 소리에 치여, 숨죽이며 속삭이던 그 소리는 너무 작았고 애처롭고 때론 엉뚱했지요. 그래서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속삭였을 텐데 말입니다. ‘조금만 쉬어가면 안될까? 너무 힘드네, 어디론가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고, 안 되겠지, 안 될거야!’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작은 속삭임이 점점 커져 노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가슴을 쿵쿵쿵쿵 쳐대며 “어서 행동으로 옮겨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이게 너의 운명이라고.”라며 고함을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는 수십 년을 들고 다니던 책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배낭을 짊어지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보통 까미노(Camino)라 불리우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 ‘생장(Saint Jean Pied de Port)’에서 출발하여 피레네산맥을 넘어 스페인 ‘산티아고(Santiago de Compostella)’까지 800km에 이르는 길을 가리킵니다. 그 길을 혼자 걸어서 가겠다고 했을 때,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왜?”였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좋은 길이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걷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물음은 나조차도 찾지 못했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5일 동안 산티아고를 향해 온전히 두 발로 걸으면서 그 의문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꾸린 배낭을 등에 지고, 매일 25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첫날은 프랑스의 작은 산골마을부터 시작하여 피레네산맥을 넘게 되는데, 봉우리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봉우리가 앞을 막고 있고 그 봉우리를 넘으면 내리막이겠거니 했지만 또다시 다른 봉우리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걸어야 했지요. 그렇게 해서 겨우

목적지에 다다를 즈음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약간의 저혈당쇼크 같은 거라 여겨집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생각했지요. ‘하루 만에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라구요. 그 다음날은 하루 종일 비오는 돌길을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은 지평선과 길이 만나는 꼭지점만 보고 걸었고 어느 날은 온종일 침묵하며 걸었고 어느 날은 별들이 반짝이는 새벽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길을 얘기해보라 한다면, 어느 날인가 32km의 평원을 속절없이 걸었던 다음날이었습니다. 그 날 걸어야 할 거리는 24km 정도였으니 전날보다 무려 8km나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보았지요. 이만하면 다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적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만하면 다 왔을 거라 여겼는데 그래도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숙소에도 착했을 때 온몸은 거의 초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정해놓은 거리가 이렇게 멀다는 것을. 어느 날은 목적하는 마을이 먼발치에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제 다 왔구나 생각했는데 가도 가도 마을은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으면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도대체 이 길을 왜 걷고 있는 거야?”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매일 매일 색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길, 그래서 어느 순간 도저히 못 견뎌다고 욕을 퍼붓던 그때쯤에, 하루가 저물던 그때쯤에, 내가 먹고 쉬고 잠들 수 있는 안식처가 거짓말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환희, 안도, 감사함이 하루를 건디게 해준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인생을 살다보면 느즈막히 깨닫는 확신 같은 것이 있습

니다. 그중 하나가 ‘운명’입니다. 흔히 ‘운명이 있네, 없네’를 두고 다투어 얘기하지만, 나는 운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내 것이 아니었음을 절감하곤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나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길이었습니다. 비록 그 길을 다녀온 후에 내 삶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두말 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그대의 영혼 안에서 그 길이 자꾸 아른거린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가보라고 하겠습니다. 분명 당신의 인생에서 후회 하나는 지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드립니다.” 매트 헤이그의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의 피지에 적혀있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시기에, 많은 독자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또한 책 속에서 건져 올린 문장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새해를 맞을까 합니다. **AF**

“가장 심오하면서도 큰 변화는 더 부자가 되거나, 더 성공하거나, 더 유명해지거나, 스발바르의 빙하와 북극곰들 사이에 있어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넓은 소파와 유카 화분, 조그만 선인장 화분과 서가, 아직 따라 해보지 않은 요가책이 있는, 어제와 똑같은 지저분한 아파트에서 어제와 똑같은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일어났다.” 40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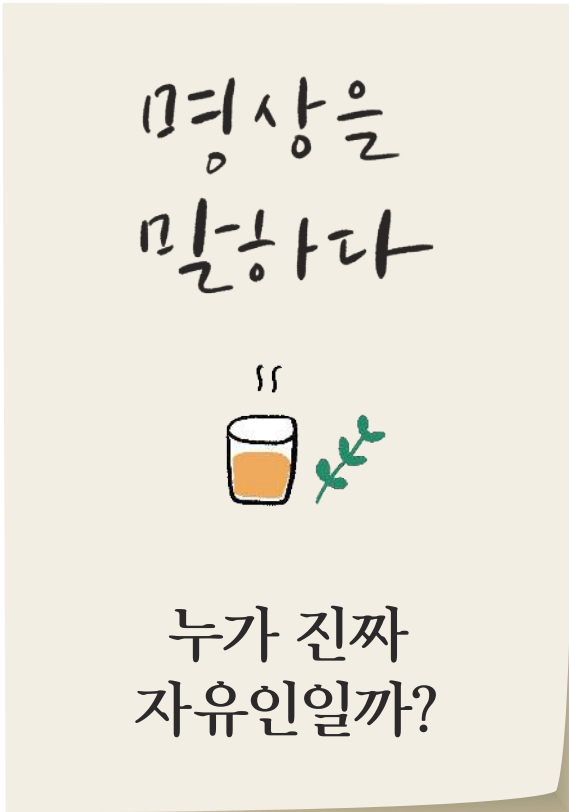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저자: 매트 헤이그
출판사: (주)인플루엔셜



글쓴이

현재 『월간에세이』 편집위원



여러분은 자유롭고 싶은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신문이나 잡지에서 이런 인터뷰 기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자가 예술계나 연예계에서 몹시 튀는 면모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사에게 “선생님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라고 묻습니다. 유명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느낌에 따라서, 내 감정에 충실하게,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아왔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이 대답에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선생님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오셨군요. 참 부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화내용 뒤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게 일어나는 느낌과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것들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일까요? 다른 가치들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므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필요치 않을까요?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것이 자유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명상적으로는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 뇌의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과 그것에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자극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느낌들에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느낌에는 더 가지려는 욕심의 마음으로, 싫은 느낌에는 떨어져 나갔으면 하는 화의 마음으로, 그저 그런 느낌에는 그저 그런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에는 더 먹으려는 욕심을 내게 되고, 나를 욕하는 말은 듣기 싫으며, 그저 그런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지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좋은 느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려 하고, 싫은 느낌들은 멀리 밀어내려고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마치 그렇게만 된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느낌과 감정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좋은 느낌들은 더욱 더 가지려 하고, 싫은 느낌들은 더욱더 밀어내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좋은 느낌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싫은 느낌은 없도록 할 수 있나요? 단언컨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는 좋은 느낌들도 일어나고 싫은 느낌들도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싫은 느낌은 없애고 좋은 느낌만을 취하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렵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각적 쾌락이라는 좋은 느낌만을 쫓아 다녀서는 결코 행복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화는 왜 일어날까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욕심이 없다면 화가 날 일도 없겠지요. 욕심이 많을수록 화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비유컨대 좋은 느낌들은 내 쪽으로 더 당기고, 싫은 느낌은 나로부터 더 멀리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기는 것과 밀어내는 것은 방향만 서로 반대일 뿐, 같은 원리라는 걸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욕심은 뒤집은 화이고, 화는 뒤집은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이 믿을 만하나요? 느낌이나 감정은 그때마다 조건들에 따라서 나에게 일어날 뿐, 내가 원하거나 예상했던 것이 아니지요.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느낌과 감정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은 그때 내가 했어야 마땅한 어떤 행동 방향과 오히

려 어긋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했다가 후회스런 일을 저질렀던 그 경험들 말입니다.

이러한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만 살아간다는 건 스스로 ‘느낌이나 감정의 노예’임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인생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만 사는 인생은 결국 느낌과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 인생이 평온과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는 없겠지요.

누가 진정한 자유인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누가 진정한 자유인일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란 지금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느낌이나 감정이 무엇이 되었든지에 상관없이 지금 해야만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자유인은 꾸준히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그냥 해나갑니다.

“성실한 일은 참다운 기쁨을 준다!” 피아니스트 빌헬름 박하우스의 좌우명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요란스럽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기복이 없는 평범한 인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이루어 나감으로써 내적 성취감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자유인은 안으로 충만해서 진정한 행복감이 내면에서 차오릅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영화로운 나날



바로 지금을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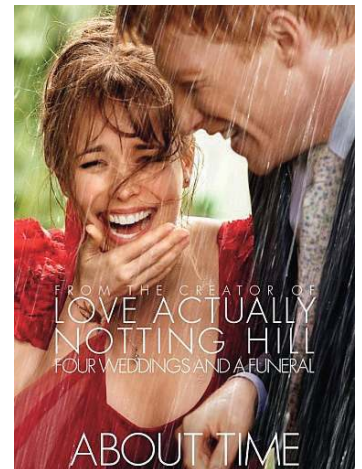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저서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에서 시간은 관계적인 개념임을 분명히 합니다. 시간은 사물들의 다양한 상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뿐이죠. 양자중력에서 시간이란 각각의 물체가 다른 물체에 비해 변화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시간을 감지할 수 있는 변수인 타인이 없다면 원자 단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 우리들은 시간을 감각하기 힘들 거라고요. 곁에 있는 가족, 동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중한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추억이 있기에 시간이 의미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돌아갈 수 없는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닌 현재 아닐까요?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과거로 갈 수 있는 시간여행자 팀(돔놀 글리슨)에게도 특별할 것 없는 바로 오늘이 값졌던 걸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딜 봐도 특별해보이진 않는 팀은 사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시간여행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능력을 이용해 메리(레이첼 맥아담스)를 만나고 결혼해 행복하게 살지만 과거로 되돌아가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그의 삶에 그늘을 드리웁니다.

남자와의 관계에서 번번이 괴로워하는 동생 케이티(리디아 윌슨)는 상처받고 자존감은 한없이 떨어지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변호사인 팀과 달리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늘 술을 마시며 남자와 문제를 일으키는 케이티는 골칫거리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에서 골칫거리들은 늘 있었죠. 그가 각본을 쓴 영화 『노팅힐』에서 윌리엄의 하우스 메이트는 괴상망측한 옷차림에 매너도 엉망이고 뚜렷한 직업도 없습니다. 역시 그가 만든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는 어떤가요. 브리짓을 지켜주는 술고래 친구들은 어딜 봐도 잘났다고 보기 힘들죠. 오히려 그의 영화에서 주인공을 둘러싼 친구들은 모자라고 약하며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의 선택을 손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커티스 감독이 영화를 통해 주변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인 셈이죠. 그리고 팀은 그 시선을 응축해낸 듯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간여행이라는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가졌음에도 메리와 재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을 돕는데 씁니다. 첫 시간여행은 새해맞이 키스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옆에 있는 여자를 실망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케이티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죠. 케이티는 지미와 헤어진 후 나도 이제 정신차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지루하게 살아야겠지라고 침울해하지만 메리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 지루하지는 않다고. 어쩌면 진짜 초능력은 시간여행보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팀의 노력 아닐까요.

리처드 커티스 감독은 『어바웃 타임』의 개봉에 앞서 감독 은퇴를 발표하면서 이 영화는 그의 은퇴작이 되었습니다. 『러브 액추얼리』의 각본을 쓰는 동안 가족을 잃으면서 무엇이 진정한 삶의 행복인지,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과 고민이 그의 마지막 영화 『어바웃 타임』에 잘 드러나 있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50살에 은퇴한 암에 걸린 시간여행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행복의 공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삶을 살 것, 그리고 시간여행을 통해 거의 똑같이 하루를 다시 살라고 합니다. 처음엔 긴장과 걱정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두 번째 살면서는 제대로 느끼도록 말이죠. 실제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정신없이 보낸 팀은 두 번째 하루에서는 가게 점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풀죽은 동료들을 위해 실없는 장난을 칩니다. 사소한 행동으로 두 사람이 웃을 수 있게 해준 두 번째 하루는 전날과 분명 달랐죠. 감독은 영화를 구상하면서 시간여행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바웃 타임』에서 시간여행은

현재를 애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시간여행의 법칙이나 첫사랑과의 재회가 그렇죠. 첫사랑 샬롯(엠버 허드)은 오랜만에 다시 만난 팀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이라고 그 때 그 여름을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현재를 함께 하고 있는 이에게 뛰어갑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과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을 실행하죠. 팀처럼 시간여행을 할 수 없는 관객들에게는 『어바웃 타임』이 미리 살아보고 온 현명한 자가 안내하는 시간여행이 되어준 셈이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내일 하루는 마치 시간여행을 한 팀의 두번째 하루처럼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걸 보면 말입니다. 영화의 제목이 ‘어바웃 러브’가 아니라 ‘어바웃 타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어느새 새해는 밝았고, 먼 미래라 생각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어마어마한 다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당신 옆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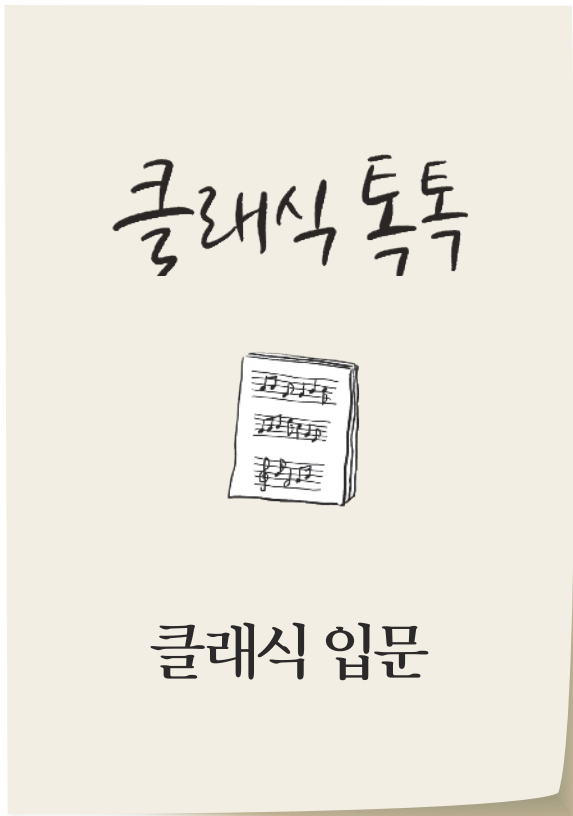


영화 『어바웃 타임』



글쓴이

영화에 대해 쓰고 말합니다. 오늘도 영화 속의 멋진 여성 캐릭터와 그보다 더 멋진 주위의 여성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성악가, 피아니스트...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보통은 어렵고 졸린 음악으로 다가온다. 클래식이 친숙하지 않은 계기로 첫손가락에 꼽던 것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그냥 들어도 졸린 데다 티켓값은 또 어지간히 비싸다.

클래식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언어적 이유다. 클래식 뿌리가 서양 전통음악인데, 정작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도 잘 모른다. 하물며 온갖 유럽어족이 난무하는 서양 클래식이 어려운 건 당연하다. 게다가 클래식 음악으로 대표되는 장면들은 대부분 이렇다.

남자주인공이 턱시도나 연미복을 입고, 관능적인 드레스의 아름다운 여성과 팔짱을 끼고 오페라 하우스에 입장한다. 몇백 개의 초가 가득한 커다란 샹들리에가 달린 화려한 로비를 지나 오페라 하우스 박스석에 입장해 둘러보니 다른 관객들도 모두 정장에 드레스 차림이다. 여주인공은 멀찍이 떨어진 무대를 굳이 오페라 글래스라는 손잡이 달린 쌍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며 장식 깃털 가득한 부채를 흔든다. 오페라 끝엔 로비에서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상류사회의 사교모임에서 정략 회답이나 밀담을 나누고, 음모와 배신, 불륜과 치정이 다음 장면으로 뒤따른다. 혹은 무대 뒤편에서 관객의 환호나 오케스트라가 가장 키지는 클라이맥스에 맞춰 VIP를 저격하려는 저격수를 뒤쫓는 액션이 뒤따르던가 한다.

그러니 클래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충 이렇다. ‘폼만 잔뜩 들어가서 쟁쟁하는 귀족문화의 음악’, 클래식 음악에 덧씌워진 모습이다.

클래식을 직접 연주하는 사람들이 클래식을 접하게 된 사정을 듣다 보면 그런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재력 넘치는 귀족 사교육을 받은 천재 연주자 이야기는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콩쿠르에서 우승한 신동이라느니, 몇십 억짜리 악기를 무상 대여받아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는 천재 소녀라든지 하는 수식어들이 말이다. 하지만 천재들은 다른 분야에도 비슷한 비율로 존재한다. 글보다 수학을 먼

저 배운 천재. 멘사클럽을 놀라게 한 천재 물리학자. 명문대를 중퇴하고 비범한 재능과 혹은 광기 어린 집착으로 전 세계 산업의 판도를 바꾼 피자 CEO. 딱히 음악 분야가 아니더라도 산업과 예술영역에 걸쳐 신화와 전설들은 넘쳐난다.

그러나 그 밖의 클래식 연주자들의 대부분은 그저 재밌어서 시작했다가 발을 들인 경우다. 우리가 클래식 작곡가들의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이름들을 외우기 전에,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베토벤, 차이콥스키 등의 이름보다 더 먼저 배우는 사람이 있다. 피아노학원에서 처음 접하는 그 이름, 바이엘이다.

19세기 피아니스트였던 바이어(F. Beyer)가 만든, 열손가락 힘을 자연스럽게 기르고 균형을 찾는 훈련곡에 멜로디를 입혀서 만든 연습곡 모음이 우리가 학원에서 만나는 바이엘 책이다. 그렇게 바이엘 책을 ‘떼고’ 나면 다음 교재는 체르니(C. Czerny)다. 체르니가 만든 연습곡 모음으로 교재가 바뀌었는지로 ‘어릴 때 피아노 좀 쳤구나’의 가늠자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이엘이든 체르니든, 치는 사람이 재밌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무슨 베토벤 아버지도 아닌 마당에 하루에 정한 피아노 치는 시간을 못 채워 회초리 맞아가며 치던 게 아니란 얘기가 다.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에 맞춰 들려오는 리듬과 소리가 익숙해지고, 조금 더 어려운 곡을 해내는 성취감 등등이 합쳐지다 보면 어느새 전공하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했던 어린 시절을 거친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전공자들이다. 스포츠나 취미와 다른 바 없고, 더 정확히는 그것이 ‘재미있어서’ 시작한 경우다.

맘에 드는 여자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필자의 경우 되시겠다), 학교나 사내 장기자랑에 드라마 OST나 노래

를 피아노로 멋들어지게 치는 상상을 하지만 그 또한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젓가락 행진곡부터 시작하다 학원 다니며, 유튜브 보며 기웃기웃하다가 어찌어찌하다 보니 그게 취미가 되고, 돈 들여 전공까지 가는 극히 일반적인 과정이 클래식이다. 누군들 성악가들이 목에 핏대 세워 가며 팬스레 어렵고 힘주며 노래하는 과정이 재밌다 싶어 배웠을까. 그저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복식호흡을 배우가며 교습을 받다가, 두성과 공명의 일치점을 찾아본 인도 놀랄 질감의 박력 넘치는 고음을 내본 사람만이 몸이 악기가 되어 황홀하게 울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성악을 취미 삼아 배우다가 결국 독창회까지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학위 수여식이나 BGM으로 귀에 익은 음악이지 싶다가 그게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란 제목을 알게 돼 한번 들어나 볼까 싶어 전곡을 듣다가, 뭔가 웅장하고 멋지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로 족하다. 구태여 작품 번호까지 외우고 작곡자 배경 지식까지 아는 체 해보야 즐리기밖에 더하겠는가.

경험과 즐거움을 통해 발을 들이는 분야가 클래식이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클래식’하면 떠오르는 궁금증을 통해 슬슬 클래식에 발을 들여놓아 보도록 하자. **AF**



글쓴이

목원대 교수, 오페라 가수

TREND

트렌드가 보인다

브랜드 굿즈 전성시대

요즘 대화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도 그에 어울리는 이름인 브랜드가 있죠. 브랜드들의 전성시대 속에 기업은 브랜드를 어떻게 표현할지 늘 고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브랜드 굿즈가 있습니다.

브랜드 굿즈의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너무 다양한 제품이 나와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기도 합니다. 안전 문제도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 제품들을 규제해야 한다고도 하지만 브랜드의 굿즈는 어느덧 마케팅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방법이 되었고, 특히 소비자들은 다양한 굿즈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 굿즈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은품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 됐죠. 스타벅스에서 굿즈를 출시한다고 하면, 굿즈를 얻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주객이 바뀐 모습도, 새벽부터 줄을 서서 굿즈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출처: 시몬스코리아 인스타그램

브랜드 굿즈는 더이상 단순한 사은품이 아닙니다. 굿즈는 고객을 브랜드의 주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팬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팬이라면 필수로 가져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캐릭터 펑수의 경우에도 그 귀여운 모습 덕분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어린 세대보다는 어른 세대에서 더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소비가 가능한 세대인 3040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굿즈가 출시됐고, 사람들은 펑수를 통해 EBS라는 브랜드까지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를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

소비자들은 화제가 되는 독특한 굿즈를 원하며 기꺼이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브랜드 캠페인은 기획부터 집행까지 큰 비용이 산출되지만, 가볍게 시도해보는 ‘굿즈’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

다. 소비자들의 니즈만 잘 충족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광고효과를 노려볼 수 있죠. 캠페인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절감하게 되어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굿즈를 자체 생산하기도 합니다. 또, 굿즈 생산을 통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객과 나눌 수 있죠.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인기를 얻었던 제품은 ‘팔도 비빔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팔도 네넴면’이라는 자모를 바꾼 디자인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라면뿐만이 아니라 슬리퍼도 만들었습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면서, 위트있는 접근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산 것이죠. 또, 50년이 넘는 브랜드 ‘곰표’는 굿즈를 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세대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밀가루 브랜드 곰표가, 맥주와 팝콘을 만들더니 대박을 쳤습니다. 이제는 자매격의 브랜드 ‘문표(곰표를 뒤집은 글씨)’ 막걸리까지 내놓았죠. 이렇듯 브랜드 굿즈는 고객과의 유쾌한 소통도 가능하게 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즘 기업에서 선택하는 최고의 홍보전략이 되었죠.

소유할 수 있는 브랜드, 굿즈

최근에는 고객 경험을 확장시키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고객에게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사업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신의 사업 영역 안에서 움직여 왔는데, 요즘 브랜드 굿즈 전략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JTBC는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 만나던 고객들을 ‘JTBC play’라는 공간에서 색다른 굿즈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을 직접 손으로 즐길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또 침대로 유명한 시몬스는 각종 스토어를 열어 다양한 이벤트와 굿즈로 고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자신의 공간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자신의 영역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다양한 고객들과 만나기 위한 브랜드들의 움직임이 이제는 필수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출처: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

굿즈를 샀더니 브랜드가 왔다

앞으로도 브랜드 굿즈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브랜드 굿즈 자체는 고객들의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내는 매개체이기도 하고, 고객들의 소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재미를 느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선한 브랜드의 굿즈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재미만 추구한다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금세 식어버릴 것입니다. 기업이 현명하게 브랜드 전략을 세워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짝 이슈가 되었다 잊혀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저 그런 브랜드가 되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신선한 자극에 이끌릴테니까요. AF



글쓴이

교육 브랜딩 전문 ‘헤이데이 컴퍼니’를 운영하며, 영화 ‘로맨틱 헤븐’ 타이틀 작업, 루미나 컬러테라피 전문가 과정 수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그림 | 강은정 작가

핫도그나 접어라



‘핫도그나 접어라.’ 미국과 유럽에서 한동안 스마트폰에 소시지를 끼워 넣는 동영상 유행했습니다. 화제를 모았던 영상들은 모두에게 웃음을 자아냈지만, 정작 우리는 웃지 못했습니다. 2019년 4월 삼성 전자는 접는 스마트폰인 갤럭시폴드를 야심 차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핸드폰에서 몇 가지 결함이 나왔을뿐더러, 디자인 역시 소비자의 눈길을 끌지 못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주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는 “뭔가 접고 싶다면 핫도그나 종이, 스카프, 의자를 접는 게 낫다.”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표현했습니다.

첫 제품이 완전히 실패하자, 삼성에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중 매체와 여론에서 쓰디쓴 반응을 맛본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직접 구매 현장에 나가서, 소비자의 의견을 최대한 들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점으로 지적된 디자인과 내구성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보완한 제품을 이륙고 출시했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편이었습니다. 삼성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출시와 보완 과정을 2년 동안 계속 거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타임지(TIMES)가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 부문에 당당히 갤럭시Z플립3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삼성의 성공 비결은 바로 올바른 피드백 과정에 있었습니다. 처음 출시된 접는 스마트폰을 향한 언론과 소비자의 반응은 정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품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기보다는 상품과 기업을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구매자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서운 비난을 무릅쓰고,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기대가 컸던 제품인 만큼, 실패가 주는 심리적 타격감은 더욱 컸습니다.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실패에 집중하기보다, 나아갈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피드백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삼성은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안전하고 열린 병영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공군에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군 밖에서 나오는 수많은 목소리에 어찌면, 우리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위축된다면, 목표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삼성 또한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고 보완에 매진했습니다. 공군인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바르고 강한 공군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천천히 변화를 이뤄갑시다. AF



공군인의 편지

글 | 대위(진) 양승찬(제18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

문득 돌아보면 같은 자리지만

선배, 잘 지내시죠? 저도 어느덧 18전비를 떠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계급 뒤에 (진)이 붙는다는 건 설레고도 책임감을 한 겹 덧쓰는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업무를 갱신하다가 우연한 일로 중위(진) 김도훈이 적힌 종이를 발견했지 뭐니까. 제가 대위(진)이 되어서, 전역한 선배의 소위 시절을 생각하니, 절로 마음이 숙연해졌답니다. 제가 중위 되자마자 다른 부대에서 허겁지겁 전속 온 탓에 선배랑 저랑 겹친 기간은 고작 1개월뿐이었지만, 한 3개월은 같이 있었던 기분이에요. 짧은 기간에 전수받느라 고생했지만, 그 이후로는 어엿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자랑스럽죠? 정말 정말 사소한 것도 물어봐서 귀찮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랬던 거 이해하시죠? 그래도 선배는 뭔가 다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투였어요. 그런 정성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잖아요. 선배 전역 전날에서야 처음 선배방에서 같이 놀았었는데,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취향이 저랑 비슷한 사람을 거의 5년 만에 봤었거든요. 즐겨 하는 게임도 그렇고, 특히 가수 ‘윤상’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되게 반가웠습니다.

동년배 중에 윤상 1집, 뭐, 이별의 그늘이나 가려진

시간 사이로, 한 걸음 더. 이런 노래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스무 살이 되어서야 윤상의 팬이 됐지만, 선배는 사춘기 시절에 들으셨겠죠. 그래도 제가 타인의 소개로 윤상 노래를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노래방 가면 18번으로 윤상 노래만 부른다니, 저도 똑같은걸요. 윤상의 팬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날에 알아서 더 애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떠날 때 되어서야 동질감을 느꼈으니 말예요.

참 신기한 게, 선배는 전역할 때 후련한 것보다 아쉬운 감정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요즘엔 ‘칼단기’라는 말이 유행하는 세태잖아요. 집으로 떠나는 선배 모습을 보는데, 소위로 부임해 전역할 때까지 진심으로 부서, 부대, 공군을 위해 정성을 쏟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선배 전역하시고 안부전화는 일부러 드문드문 했어요. 사실, 핸드폰 바뀌서 선배 번호 지워졌었거든요. 언제부턴가 연락 뜸해져서 서운하셨죠? 하하하, 사실 연락 없이 오랜만에 봐도 어제 본 것 마냥 편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전우잖아요. 아무쪼록 만사형통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선배 모습이 저희 후배가 뒤따라갈 모습이니깐요. 잘 되시길 빌어요. 아 그리고, 선배가 두고 간 겨울용 두꺼운 장갑은 잘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장갑은 처음 써봤어요. **AF**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cjhminam1210@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책읽는 공군

글 | 일병 강대호(제8전투비행단 제237전투비행대대)

라틴어, 언어로 나와 세계를 배우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은 사실 라틴어 수업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라틴어에 얽힌 이야기’라는 제목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라틴어에 관한 여러 철학자, 옛 현인의 담론이 담겨있습니다. 언어는 마치 유전자처럼 유리한 지식을 후세로 전달합니다. 언어는 민족성을 담기도 하고, ‘나’라는 정신체의 수족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펼쳐진 대대적인 한글 말살 정책만 하더라도 언어의 힘을 억제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일제 신민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언어가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고유한 애고를 계승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배우냐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라틴어는 어떠할까요? 라틴어는 가톨릭 종교의 언어이자, 로마 제국의 언어로 유럽 지식인들의 공용어였습니다. 라틴어는 수많은 언어의 모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라틴어는 유럽공동체, 넓게는 아랍, 인도인들이 집대성한 유구한 기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럽인들은 학교에서 라틴어를 왕왕 배웁니다. 하지만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라틴어를 이해했다면 양반입니다. 라틴어 수업은 그들에게 곱고, 까다롭고, 다공성 벽처럼 까칠한 어려운 역사 수업입니다. 그들은 라틴어를 더듬어 느끼고 습득하면서, 선조들의 문화를 몸소 체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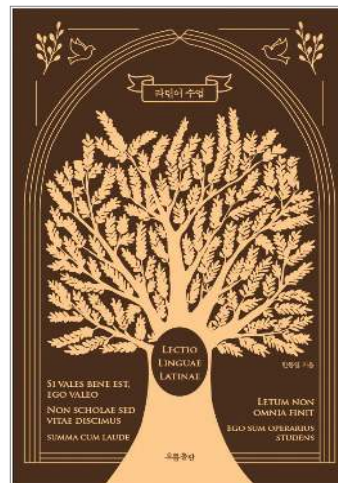
『라틴어 수업』에서는 문법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표제를 정하고, 그에 얽힌 일화들이 라틴어에 담긴 지혜를 느끼게 합니다. 저는 『라틴어 수업』을 읽으면서 수많은 철학적 고민들을 마주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배움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이 마주할 심오한 주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라틴어라는 언어 장벽에 가로막힌 위대한 명제들을 고민하면서, 철학

적 자신으로 승화된 저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 수업이라는 칠판에 적힌 표제 하나를 예시로 들고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Carpe diem, quam minimum credula postero*’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구로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고’라는 뜻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사조에도 영감을 준 유명한 말입니다. 동양의 비슷한 말로는 ‘안분지족’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고 살아갑니다. 내일은 가까운 미래엔 복학이라는 허들이 될 것이고, 먼 미래에는 취업이라는 파도가 되겠죠.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이러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를 희생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라, 우리는 불안과 자기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의 말처럼 카르페 디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불확실한 행복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카르페 디엠, 지금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을 수반한다 장담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장 오늘 행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틴어 수업』
(한동일 지음, 흐름출판 펴냄)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돌연변이


2021년 한 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단어는 무엇일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돌연변이가 아닐까 싶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으로 조금 잠잠해지려고 하면, 델타 변이, 누 변이, 오미크론 등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다시 공포로 몰아세웠다. 또한, 새로 시작하는 2022년. 임인년의 의미는 검은 호랑이로, 공교롭게도 호랑이 중 개체 수가 얼마 안 되는 돌연변이에 해당한다.

돌연변이란, 생물학적 정의에 따르면, 유전정보가 기록된 DNA가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로 인하여 원본과 달라진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서 오류란, 외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단순한 유전학적 변화일 수도 있다. 사회에서 돌연변이는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의 명작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서도 주인공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 오리 무리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말이다.

돌연변이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부정적이기 쉽다. 가령,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경계한다. 경계를 푸는 방법이 바로 대화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해나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호감의 표시인 웃음을 짓는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습 혹은 성격이 내가 평소에 마주한 사람과 다른 사람일수록 경계를 풀기에 쉽지 않다.

따라서, 돌연변이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균일하게 맞추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돌연변이의 출현은 사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붉은색 벼 사이에서 나온 흰 벼, 보라색 당근 사이에서 나온 주황색 당근으로, 인류는 식량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고, 낙제생이던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었으며, 시험만 보면 늘 떨어지던 톨스토이는 대문호가 되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될만한 기업과 지역 사회 역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목표 중에 하나로 구성원의 다양성 존중을 두고 있다. 때로는 불편한 생각들이, 때로는 엉뚱한 관점들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내 주변에 돌연변이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가까운 눈초리와 경계심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조금씩 다가가 보자. 그들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보자. 과거에 허무맹랑했던 이야기들이 오늘날 현실로 다가왔던 것처럼, 지금 틀렸다고 믿는 그들의 생각들이 미래에는 정답이 될 수 있다. 올 한 해 불협화음 또한 아름다운 선율로 소화할 수 있는 공군인이 되길 나 자신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바란다! 

마음의 소리

장신희

pee06**@naver.com

항상 예전부터 공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중학생 3학년입니다. 공군을 사랑하는 마음에 공군지를 구독해 2년 가까이 읽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느꼈지만, 깔끔한 내용과 잡담이 없어 교양을 아낌없이 국민에게 나눠주는 공군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열심히 갈고닦아 꼭 자랑스러운 공군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필승!

(AF. 따뜻한 응원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교생활은 3년짜리 마라톤입니다. 그러니 급히 달리실 필요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다보면 꼭 뜻하신 바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조대연

hno050**@naver.com

수용의 미학을 읽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마음을 달래주는 것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이 큰 공감이 되더라고요. 또,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연재가 끝났네요. 이렇게나 많은 문인들이 공군에 작품을 남기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2022년에도 새로운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

(AF. 공군지는 애독자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받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애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년호부터 새로운 코너를 많이 준비했으니, 2022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조영민

chohans10**@naver.com

이번 12월 호가 올해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군지라 생각하니 아쉽고 섭섭한 마음에 책장 하나하나를 더욱 소중히 넘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올 한 해도 공군지와 함께한 덕분에 많이 웃고, 많이 생각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는 물론이고, 공군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도 알차고 유익한 이야기로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공군지가 되길 응원합니다.

(AF. 뜨거운 성원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모습으로 매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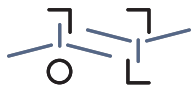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 코드

●●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Book 자료관(www.afzine.co.kr) <독자 의견> 코너에 올려주세요.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5 2 3